

## 12월 20일 토요일 / 모잠비크 (37위)

치우레 지구 나팔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20명의 그리스도인이 희생되었고, 약 1,300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으며, 교회 두 곳이 불에 탔습니다. 또한, 약 2,000명의 신자가 피난 길에 올랐습니다. 고통 속에 애통해하는 모잠비크 치우레 지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21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나이지리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9년 성탄절 아침, 무장 경찰이 기독교 보육원을 급습하여 27명의 아동이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구금된 아이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으며, 교육이 중단되고 강제 개종도 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이들에게는 보호와 정의, 그리고 희망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의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6년간 임의로 구금된 기독교 보육원 아동들이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22일 월요일 / 키르기스스탄 (47위)

슈라이더 목사(65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2024년 비밀경찰에 의해 '종교적 민족 중도 선동'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위를 고문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성 뇌 손상" 진단과 함께 인지 기능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슈라이더 목사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수사 중 발생한 고문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23일 화요일 / 이라크 (17위)

이라크 의회 전체 329석 중 기독교에 할당된 5석마저 비기독교 세력이 차지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며 11월 선거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이라크의 기독교 인구는 약 150만 명에서 20만 명 이하로 급감했으며, 이들은 정부 내 진정한 대표자 부재로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당에 소수 민족인 기독교인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24일 수요일 / 시리아 (18위)

수웨이다 지역과 그 인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소 30가구 이상의 기독교 가정의 집을 잃고 피난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인 라마는 자녀들과 함께 약 400명의 피난민과 함께 2주 동안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현재 라마와 자녀들은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회복 중이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정부 통제 밖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수웨이다에 남은 신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25일 목요일 / 팔레스타인 영토 (62위)

휴전 이후에도 가자 지구 기독교인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 약 1,070명이었던 가자 지구 기독교 공동체에서 최근 21명이 국경을 넘어 서방 국가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찾아 대거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26일 금요일 / 이란 (9위)

기독교 개종자 모르테자는 2024년 6월, 바라민과 피슈바 지역에서 기독교인 단속이 이루어지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6개월간 고문과 독방 생활을 견딘 끝에, "최고지도자 모욕"이라는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르테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12월 27일 토요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7위)

2013년 내전이 발발한 후, 기독교인들은 분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폭력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불에 타거나 공동체가 강제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장 단체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자들을 공격하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주의 단체들의 표적이 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28일 주일 / 부르키나파소 (20위)

최근 몇 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여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등장으로 기독교인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고, 신자들은 납치, 살해당했으며,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견뎌낸 기독교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29일 월요일 / 멕시코 (31위)

2024년 12월, 멕시코 남서부 지역에서 무장 단체의 폭력으로 인해 12명의 여성이 남편을 잃었고, 생계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폭력 조직

은 기독교 신앙이 가져오는 변화를 위협으로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현재 이 여성들은 임시 거주지에서 살아가며 오픈도어와 현지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식량, 심리 상담, 영적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30일 화요일 / 필리핀 (78위)

필리핀 바실란주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고 무장 세력이 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는 지역 정부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 약 7,431명 중 약 90%가 인접 마을로 대피했으며, 교전 중 한 아이가 부상을 당했고 많은 집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 사역자들과 신앙 공동체에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31일 수요일 / 온두라스 (65위)

온두라스의 목회자들은 빈곤과 온갖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빈곤에 처해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연구 자료와 훈련을 지원했으며, 이 지원을 통해 목회자들은 깊은 성경 지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성경 자료 지원 사역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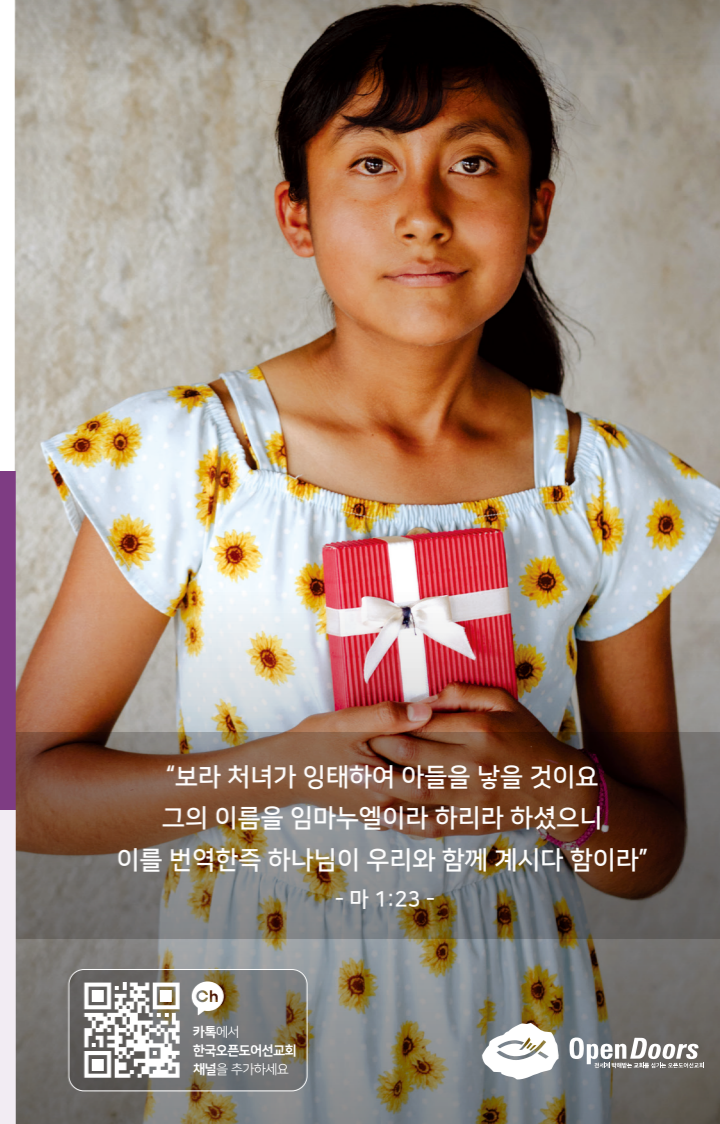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12월  
VOL.

# 기도월력 28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 1:23 -





### 12월 1일 월요일 / 중국 (15위)

중국 내 40개 이상 도시에서 교회 개척, 교육, 온라인 사역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온 시온교회의 목사님과 신자들이 “인터넷 불법 정보 사용”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많은 교회가 급속당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류된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2일 화요일 / 아프가니스탄 (10위)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공개적인 기독교 신앙 활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강제 개종, 수감 및 폭력 등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아프간의 신자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3일 수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2025년 5월, 수마트라주 리아우 지방에서 8살 크리스토펠이 신앙을 이유로 또래 학생들에게 둔기로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종교적 차별과 폭력 문제가 단지 괴롭힘의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펠의 가족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4일 목요일 / 베트남 (44위)

최근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 찬양, 예배 및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 교회들은 이 행사를 전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트남 비신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5일 금요일 / 에리트레아 (6위)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감시와 통제가 심하여, 2002년 기독교인이 강제 추방당한 이후 대부분의 선교사역은 중단되었고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6일 토요일 / 네팔 (54위)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급진적인 힌두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방해 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와 신자들을 괴롭히고, 교회 활동을 막고, 교회 건축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려는 여성 신자들은 육체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7일 주일 / 파키스탄 (8위)

일부 지역은 심한 홍수로 집과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을 구하지 못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생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8일 월요일 / 코모로 (42위)

코모로 제도에서는 수니파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도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인 추방될 수 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현지 기독교인들은 기소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세 곳의 교회에서만 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코모로의 법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9일 화요일 / 라오스 (22위)

라오스 공산당 정부는 등록된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교회 중 약 75%는 건물이 없습니다. 모든 모임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목회자가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를 목양하는 것은 위협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양떼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10일 수요일 / 타지키스탄 (39위)

타지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150명 이상을 타지키스탄에서 추방했습니다. 경찰은 1인당 약 1,000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추방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생겨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11일 목요일 / 부탄 (36위)

부탄에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해 정식 예배당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가정이나 임대 공간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와 당국의 반대로 모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12일 금요일 / 방글라데시 (24위)

사고르는 2002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들은 자신의 믿음에 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고르는 직장에서 동료,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제자훈련반을 이끌며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고르의 아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13일 토요일 / 러시아 (56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침례 교회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불법 선교 활동” 등의 혐의로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문을 잠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교회가 야외에서 모여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러시아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교회 모임을 방해하는 법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14일 주일 / 수단 (5위)

2023년 4월 15일에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수단은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했으며, 식량과 의료, 보호 체계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의 4%에 불과한 기독교인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안전한 장소와 필요한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15일 월요일 /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는 2026년 1월 15일(목),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미나실에서 열릴 월드와치리스트(WWL) 발표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이번 발표회를 잘 준비하여, 한국 교회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12월 16일 화요일 / 니카라과 (30위)

니카라과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 속 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체포, 재산 몰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폐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2월 17일 수요일 / 중앙아시아

나이라는 어린이 센터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료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그중 아이샤는 “이슬람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나이라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 일로 인해 직장에서 위협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는 논쟁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 12월 18일 목요일 / 니제르 (28위)

2023년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위협해졌으며, 공격과 납치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19일 금요일 / 스리랑카 (61위)

아시리 목사는 지난 3월, 성도들과 한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40명의 새 신자들을 위한 모임을 열고자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반대 세력으로 인해 하루 전날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몇 주 전에는 성도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세워 칼로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 목사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